

##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 제 1강 플라톤의 대화편과 『국가』

#### ◆ 1교시 플라톤의 대화편 : 소크라테스의 사상인가, 플라톤의 사상인가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국가』를 8주 동안 볼 텐데,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강의계획서 비슷하게 쓴 것 받아보셨죠? 오늘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관계, 대화편으로 철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 플라톤이 활동을 했던 역사적 배경 같은 것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7시간 동안 『국가』편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국가』편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소개되기로는 텍스트 강좌라고 해서 국가 텍스트를 계속 읽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시다만,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업 진행은 제가 주로 강의를 하는 방식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미리 좀 읽어 오시고, 오히려 강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꼼꼼하게 읽는다는지 할 순 없거든요. 여러분이 미리 읽어 오시면 좋겠어요.

#### ▲ 플라톤 대화편의 주인공, 소크라테스

일단 『국가』편은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의 주요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플라톤의 작품 활동들을 보면, 플라톤이 일단은 전부다 대화편 형식의 글들을 썼어요. 플라톤의 작품들에는 소크라테스가 대부분의 경우에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지 않는 대화편은 『법률』편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화편에는 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작품으로 생각되는 몇몇 작품들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잠깐 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말하자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되죠.

#### ▲ 대화편, 플라톤의 사상을 읽어내는 것의 어려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편을 플라톤의 주저라고 이야기를 하구요. 플라톤의 주저라고 이야기할 때, 플라톤의 사상이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뭐 주저인 만큼 플라톤의 중심생각이 『국가』에 담겨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보고 나서 플라톤의 생각이 뭔지 딱 이야기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의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논문형식의 글을 쓴 것도 아니에요. 덕이란 무엇이다, 이데아란 무엇이다, 라는 식의 논의를 직접 자기 입으로 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작품들이, 전부다 어떤 종류의 대화편들을 저술을 했어요. 그 대화편들에서 플라톤이 자기 대화편에 자기가 등장해서 이러이러하다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플라톤의 생각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 할 때는... 사실은 플라톤이 쓴 대화

편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소설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플라톤이 어떤 식으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서 플라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오늘날의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날의 누군가가 소설을 썼다고 한다면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소설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다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가하고 그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구요. 물론 소설을 통해서 그 저자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직접적으로 어떤 소설가가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등장인물이 한 말과 저자의 생각을 바로 연결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톤이 『국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플라톤은 『국가』에서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은 그냥 『국가』라는 대화편을 썼을 뿐이지요. 『국가』편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작품들이 전부 다 대화편들이다 보니까 사실 모든 대화편에 대해서 이 문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의 대화편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소크라테스하고 저자인 플라톤하고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플라톤을 읽을 때 있어서 언제나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아닌 대화편들 - 플라톤을 대변하는 가공의 인물

아까 말씀드리기를 어떤 경우에는 플라톤이 주인공이 아닌... 아, 죄송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주인공이 아닌 대화편도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대화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법률』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소크라테스 대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기에서는, 이제 아테네 사람이라고 등장을 해요.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아테네 사람이 어떠한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사람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고 어떤 아테네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가공인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가공인물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 가공인물이 아마도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편의 등장인물, 주요 등장인물이 하는 이야기하고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 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가공의 인물이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크게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테스』나 『정치가』 같은 경우에는 엘레아에서 온 이방인, 어떻게 보면 손님,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경우에도 아마도 그 사람이 플라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 ▲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인 대화편들의 문제

이제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소크라테스가 말하자면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면 『국가』 등, 대화편 어디에 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름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공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자가 어떤 사람에게 이름 하나 붙여준다, 아까 이제 뭐, 아테네인, 엘레아에서 온 어떤 사람, 이 경우에도 이름은 안 붙였지만, 거기다가 이름 하나 붙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티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으로 티마이오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존인물이었다기보다는 플라톤이 가공해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티마이오스라던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가공의 인물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저자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인공 하나가 등장을 해서 계속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란 게 어쨌든 플라톤이 전부다 지어낸 이야기들일 테고, 지어낸 이야기인 한에서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 ▲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상을 구분하는 난제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플라톤의 그 스승이 되는 사람이죠. 스승을 등장을 시켜서, 그 대화편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플라톤의 대화편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곧, 뭐 어떤 이제 생각을 개진했겠죠. 덕이 무엇이라든지, 무슨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앎이란 어떤 것이라는, 이런 식의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주장은 누구의 생각이나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아니면 플라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가늠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소크라테스하고 관련된 이 문제가, 플라톤 대화편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은,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등장인물로서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 ▲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상의 구분 방법 - 대화편의 시기구분

이 질문에 대한 흔한 대답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중기 이후의 대화편에서는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대답이구요. 실제로 그런 대답이 많이, 그 이런저런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정설 비슷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흔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초기 대화편의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이고, 중기 이후 대화편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다, 사실은 소크라테스를 내세웠지만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대답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뭐냐 하면,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어떤 것은 초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은 중기 이후의 대화편이라고 나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편은 초기 대화편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대화편은 중기 대화편이다, 그러니까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저자인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 ▲ 대화편의 시기구분을 위한 기존의 시도

문제는 어떤 것이 초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이 중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이 후기 대화편이냐.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플라톤 대화편을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사 책들도 그렇고... 요즘에 뭐 고대철학과 관련한 2차 문헌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문헌들을 봐도, 플라톤 하면 전부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 이런 식으로 나뉘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로 읽게 될 박종현 선생이 번역하신 『국가』 편에도 보면, 해제 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초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들이 중기 대화편이고, 어떤 것이 후기 대화편이라고 나뉘져 있고요. 사실 이렇게 그 플라톤 대화편들을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으로 나누는 관행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관행, 그렇게 나누는 작업을 한 것이 19세기 들어와서 해서 20세기, 적어도 중반정도 까지는 초기, 중기, 후기 대화편으로 나누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어떤 것을 초기에 넣어야지 된다고, 어떤 것을 중기에 넣어야지 된다고, 어떤 것을 후기에 넣어야지 된다고, 이런 논란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논란들 사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근거들은 도대체 뭐냐. 요즘 같으면 출판년도가 딱 찍혀 있으니까, 이게 뭐 몇 년도에 출판됐냐, 그러니까 저자가 몇 살 때 이 책을 썼고... 뭐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2400-2500년 전에 책의 출판년도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품이 초기 대화편이고, 어떤 작품이 후기 대화편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중기이고, 어떤 것이 후기이고... 뭐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 연구들은 예컨대 글자 수를 센다거나... 어떤 글자가 어떤 대화편에 많이 나오고, 어떤 대화편에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단어가 많이 쓰이는 대화편들은 대충 그 시기가 비슷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철자 수를 세기도 하구요. 단어를 세기도 하고, 문법적인 형상들... 뭐 복잡한 테크닉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부터 유행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으로 나누는 작업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

들을 하면서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중기이고, 어떤 것이 후기이고... 뭐 이런 것을 나누는 작업들을 했던 말이에요. 한 100년 가까이 그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 ▲ 대화편의 객관적 시기구분의 어려움

그 결과 학자들 사이에서 얻게 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런 거 열심히 해봐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서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중기이고, 하는 얘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예요, 오히려. 한 100년 정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이것에 따라서 잘 된다, 잘 된다 막 이랬었어요. 잘 된다 이래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애들이 좀 있단 말이죠. 안 맞는 애들을 이리 끼워놓고, 저리 끼워놓고 하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이것은 여기 넣어야지 된다, 이것은 저기 넣어야지 된다,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저런 작업들을 이제 막 하고... 보다 정교한 작업들을 막 하다보니까 이거 해도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결론에, 다소 아이러니컬한 결론에,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체, 이런 작업을 문체비교라고 하는데요. 문체비교를 통해서 플라톤의 작품들의 저술시기를 정하는 것들, 그런 작업이 198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학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사항이, 오히려 그렇게, 플라톤의 작품들의 시기를 객관적으로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에 오히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초기, 중기, 후기, 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다 그 어떤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에서는 오히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에 오히려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후기 대화편에 속하는 여섯 작품에 대한 합의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후기의 작품, 그 여섯 작품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후기 작품 여섯 작품이라는 것은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 그 다음에 『필레보스』와 『소피스테스』, 『정치가』, 『법률』 편,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이 가운데 『법률』 편을 제외하고는 국내 번역이 전부 나와 있어요. 『필레보스』하고 『티마이오스』는 박종현 선생님 번역으로 서광사에서 나온 책으로 나와 있구요. 『티마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김영균 선생님하고 공역으로 나와 있고, 『필레보스』는 사실 이제 이기백 선생님하고 공역으로 나올 예정으로 있다가 나중에 가서 박종현 선생님 혼자 이름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있고. 『소피스테스』하고 『정치가』는 김태경 선생님 번역으로 나와 있고요. 『크리티아스』는 이제 최근에 이정호 선생님 번역으로, 정암학당에서 플라톤 전집 출간을 하면서 첫 번째 시리즈가 세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편이 『크리티아스』고, 『법률』 편도 머지않아 번역이 나올 겁니다. 박종현 선생도 번역을 하고 계시고, 학진 과제로도 번역이 이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법률』 편도 나올 텐데요. 이 여섯 편에 경우에는 우리가 후기 작품이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후기이고 하는, 이런 합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여섯 작품 외에도 몇 작품이 후기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들도 객관적으로 후기라고 이야기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는 초기, 중기, 이런 시기 나누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여섯 편은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아닌 후기 대화편들

문제는, 애초의 우리의 문제...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냐, 아니면 플라톤이냐,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 질문하고 관련해서는 후기 여섯 작품이 객관적으로 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별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후기 작품들이라는 게 바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아닌 대화편들입니다. 그러니까 『필레보스』만을 제외하면 후기의 나머지 다섯 편은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티마이오스』에서는 티마이오스고, 『정치가』하고 『소피스테스』에서는 엘레아에서 온 어떤 다른 사람들이구요. 『법률』 편은 아테네인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법률』 편에 나오는 아테네인이 사실은 소크라테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그 재판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받아 죽지 않고 만약에... 그 『크리톤』 편에서 이제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보고 사형 당하지 말고 아테네를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서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지 않고 아테네를 떠났다고 한다면 뭐 어땠을까, 떠나가지고 어떤 다른 데에 가서 나름대로의 훌륭한 나라를 구성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한 번 상상해서 그려봤다.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지금 이 우리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여섯 편의 작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냐, 플라톤이냐 하는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초기 대화편하고, 중기 대화편하고...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중기냐,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 대화편 시기구분의 제한적 유용성

물론 이제 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초기, 중기, 후기를 나누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중기 나누는 것을 학자들이 안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학자들이 플라톤의 대화편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초기라 하구요, 어떤 것은 중기라 그래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읽게 될 『국가』 편은 중기 대화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이것이 해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에 대충 쓰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다는 것일 뿐이지요. 학자들이 이제 다른 기준, 말하자면 대화편들의 내용들을 보고 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은 아마 초기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중기에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

고 초기하고 중기를 나누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방법과 관련해서 역시 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그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플라톤의 등장인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들은 초기 작품들이고, 역사적인 소크라테스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면 중기 대화편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 ◆ 2교시 플라톤 사상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태도

### ▲ 대화편 시기구분의 필요성

문제는 이것이 아까 애초의 문제, 어느 게 초기냐, 어느 게 중기냐, 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의 문제,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 그러니까 대화편에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야기 할 것이냐, 플라톤의 철학을 할 것이냐, 이것이 애초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초기 대화편의 소크라테스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이고, 중기 대화편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것이 초기이고 어떤 것이 중기인지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이 초기냐 할 때,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초기이고 플라톤의 고유한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기이다, 뭐 이렇게 보면 순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순환논증이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초기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사실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이다, 왜냐하면 그건 초기 대화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초기 대화편이냐, 이건 거기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순환논증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데 순환논증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벗어나서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되는 거죠.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뭐 이러이러해요.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니까 그 중의 일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 이게 초기대화편이구나, 뭐 이렇게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되죠.

### ▲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상의 차이

문제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플라톤의 사상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구별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이것은 초기 대화편이다, 이것은 중기 대화편이다, 이런 해석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준거점이 되죠. 그것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고하는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일단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은 자연에 관심을 가졌지만,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사회와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의 테피니션(definition),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플라톤과 비교해서... 그 플라톤의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분리된 어떤 것으로, 사물과,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과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



있고 그것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따르면 소위 형상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데아론, 개별적인 사물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적어도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데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들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국가』편 같은 것이 중기 대화편이다, 초기 대화편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한테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못해주는 것이요. 플라톤하면 이데아, 형상, 워낙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플라톤 대화편들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이제 플라톤 대화편들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데아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개진되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론을 개진하고 있는 대화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국가』편, 『파이돈』 편, 『향연』 그 정도예요. 『파이디오스』 뭐 요 정도. 나머지 대화편들에도 물론 이데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있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에 딱 맞는 어떤 이론들이 등장하는 대화편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나머지 대화편들 중에서도 그 한 네 개 정도 대화편은 중기 대화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것들은 대체 어떻게 따져야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만을 가지고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구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 ▲ 다양한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 역사적 소크라테스를 파악하는 것의 어려움

또한 그 재미있는 것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편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플라톤만 그렇게 그런 것을 쓴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소크라테스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성립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화편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유행처럼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지은 대화편들, 그 다음에 크세노폰이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썼어요. 그것들은 이제 현재까지 남아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크리톤』이라든지 『파이돈』도 소크라테스적인, 소크라티코이 로고이(sokratikoi logoi)라고 그러는데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있는데, 뭐 문제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라고 된 많은 글들에서 보이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다 조금씩 달라요. 플라톤 외에도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만약 각각의 이야기에서 그려진, 묘사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대충 이렇게구나... 예컨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이 대충 일치한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이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들은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쓴 사람들 중에 안티스페네스란 사람도 있고 아리스티푸스란 사람도 있는데, 안티스페네스라는 사람은 즉, 말하자면 금욕주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견유학파가 이제 성립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리스트티푸스는 퀴레네 학파, 쾌락주의, 그것을 설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동료,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서 소크라테스를 기념하면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썼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의 사상들 자체가, 아리스티푸스니 안티스페네스니, 금욕주의니, 쾌락주의니, 하는 것은 극과 극인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것들이 대화편들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대화편들의 대부분이 단편들만 남아있어서 정확하게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기도 어렵구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크세노폰하고 플라톤인데요. 우리가 그 플라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플라톤이 쓴 이야기하고는 독립적으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면, 그 모습하고 일치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초기 대화편이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애초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것이 플라톤하고 크세노폰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크세노폰의 경우에는 플라톤을 좀, 플라톤의 대화편을 보고 많이 참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플라톤의 대화편과 독립적으로,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그려보기가 굉장히 어렵구요.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플라톤의 대화편 초기라고 생각되는 대화편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재구성한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일종의 순환이 있을 수밖에 없죠.

#### ▲ 플라톤 사상에 대한 해석학적 논의 - 발전론 vs. 단일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대해서 시기 구별, 특히 초기와 중기 대화편들하고 관련해서는 시기 구별하는 것이 썩 명확한 근거가 잘 없고요.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기 구별 다 하구요. 저 자신도 어떤 대화편은 초기고, 어떤 것은 중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그 어떤 해석자들이 대화편을 읽고 나서, 그 대화편의 내용과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플라톤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해석들이 가미되어서 시기 구별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러냐. 어떤 해석이라고 했으면 해석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해석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플라톤의 사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라는 문제, 결국에는 그 문제로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구별하는 것도 그 플라톤의 사상이 어떤 것이라는 해석들을 가지고 시기구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톤의 사상이 어떻다는 그 생각, 그런 해석이 실질적으로 대화편, 각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플라톤의 사상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플라톤 해석에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그 입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입장에 따르면 플라톤의 사상은, 플라톤이 대화편들을 쓰는 내내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일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 Unitarianism이라고 하고요. 다른 것은 Developmentalism인데, 플라톤의 사상

내에서 어떤 종류의 발전이 있었고, 우리가 그 발전을 플라톤의 대화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주장이 발전론입니다. Development가 있다는 거구요. 그리고 사실 뭐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항상 플라톤은 한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화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펼쳤고 저 대화편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펼쳤다고 하는 것이 단일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0세기 동안, 20세기 중반에서 보면 영미권에서는 이제 발전론이 우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륙권에서는 이제 그 단일론이 더 우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 ▲ 발전론

대표적인 학자로는, 발전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블라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 출신 사람인데요. 원래는 터키 지역이었다는데... 어쨌든 이 블라스토스라는 이름은 그리스계 이름이고,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었던 학자입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제일 극단적인 발전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서로 극과 극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가졌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블라스토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초기 대화편하고 중기 대화편을 나누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에는, 플라톤이 저술할 때 초기에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어떤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대화편에서 썼고, 중기쯤에 가면 플라톤이 자기 자신의 독창적이고 성숙한 철학을 개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의 철학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초기에 제기되었던 소크라테스적인 철학과 중기의 플라톤적인 철학은 굉장히 다르다, 극과 극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 ▲ 단일론

이것과 비교해서 단일론자로는 대표적으로 예거 같은 사람, 저기 『파이데이아』라는 책을 쓴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베르다 예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 자신의 대화편 맨 처음 작품을 썼을 때 이미 『국가』 같은 성숙한 철학적인 생각을 개진하는, 그런 생각을 이미 다가지고 있었다, 맨 처음에 첫 대화편의 첫 글자를 쓸 때부터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거 같은 사람하고 블라스토스 같은 사람의 주장은 극과 극이 되겠죠. 예거는 Jager, 블라스토스는 vlastos. 방금 이제 블라스토스같은 사람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톤의 사상이 어떤 발전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계기는 뭐냐 하면,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들이 서로 비일관적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겁니다.

블라스토스같은 사람은 그 예컨대 어떤 『플루타코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국가』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서로 양립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해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발전론이겠죠. 소크라

테스가 다 다른데, 그것은 요때는 소크라테스의 생각으로 이리이러하게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플라톤의 대화편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주장들의 비밀관성을 설명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이 되겠죠.

단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생각들이 표면적으로는 좀 서로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잘 살펴보면 일관적이다,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일론자 중에도요. 방금 예거 같은 사람은 그런 라인에 서있다, 그런 입장에 서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 플라톤 대화편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생각들이 이리저리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크라테스이고, 우리가 등장인물과 저자를 구별하게 되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게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라톤 자신은 그 등장인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와 상관없이 일관된 생각을 쫓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플라톤의 생각은 단순 일관적이었는데, 다만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런 대화편에서는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저런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는 방식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죠.

#### ▲ 두 가지 해석과 대화편 시기구분과의 연관성

그런 단일론적인 해결책하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대화편 시기 구별하는 것하고 어떤 식의 연관이 있을 수 있냐면, 예컨대 초기의 대화편에서는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그려냈다, 하지만 플라톤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다, 원래 중기부터 중기나 등장하는 그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갈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단일론, 플라톤의 생각에 대해서 단일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대화편에서는 자기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했다, 어떤 대화편에서는 자기 생각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갈수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대화편의 생각이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모습인데 그 생각을 플라톤 자신도 그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발전론의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라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생각 자체들이 좀 이렇게 대화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또 단일론적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한참 동안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무슨 진짜 플라톤 전문가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워낙 초기 대화편, 중기 대화편, 후기 대화편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상식처럼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석자들의 해석이 들어간 것이고 사실 어느 것이 초기이고 어느 것이 중기인지에 대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있는 것은, 그런 대화편은 많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대화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관련해서요. 결국에는 특히 우리 『국가』를 읽는 것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왜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가지고서 플라톤의 사상이다, 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무리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어찌면 단순히 소크라테스라는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가능성도 있겠죠.

### ▲ 『국가』를 읽는 우리의 태도

적어도 우리가 『국가』를 읽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취할 태도라는 것은 즉 뭐냐 하면, 이 작품을 작품으로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싶고요. 가장 이런 저러한 전제를 가지고 안 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했으면... 『국가』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것을 플라톤 자신의 생각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한 단계 더 다른 논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제나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개진된 생각은 반드시 플라톤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가능성으로 보면 플라톤의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적어도 『국가』편 썸 되면, 그래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편의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으로 국한을 시켜서 방법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덧붙여서 그러면 저자인 플라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인 플라톤이 이러저러한 드라마적인 장치들을 써서, 이런 저런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로 하여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저자가 하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그 소크라테스가, 뭐 이제 트라시마코스나 글라우콘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역사적인 일을 보고하는 책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소크라테스하고 관련해서 가장 역사적인 소크라테스의 모습과 가깝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화편의 경우조차도, 그것이 단순히 말하자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처럼... 예수의 어떤 행적을 제자가 나중에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록한다는 태도로 쓰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금 좋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플라톤이 쓴 것은 어떤 소설, 혹은 희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자가 이런 저러한 장치들, 드라마적인 장치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읽으면서 관심을 가질 것은 등장인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그것이 첫 번째 관심이고요. 그것이 반드시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일치하던지, 일치하지 않던지,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혹은 트라시마코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등장인물 중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요. 추가적으로 저자가 중간 중간에 집어넣는 드라마적인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런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면서 『국가』를 앞으로 읽으실 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다음 시간 정도에 1권 정도까지는 읽어 오셔야지, 읽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가능한 한 빨리 『국

가』 전체를 읽어보시고, 수업 진도에 맞춰서 그때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은 두 가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드라마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등장인물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가』 편만이 아니라 플라톤의 대화편 어떤 것을 읽을 때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만 다 맞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간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또 플라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꼭 소크라테스 주인공 중심으로 읽지 말고요. 다른 대화 상대방들이 어떤 식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도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러한 드라마적 장치들도 또 좀 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해요.